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도연

2011년 8월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 성 봉

김 도 연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8월

김도연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년 8월

<국문초록>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김도연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성봉

본 연구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기효능감이 사회적지지와 진로성숙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사회적지지와(부모, 교사, 친구)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는 상관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사회적지지는(부모, 교사, 친구)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4: 사회적지지는(부모, 교사, 친구)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5: 사회적지지와(부모, 교사, 친구) 진로성숙도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가?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10개 고등학교의 1,2학년 남,여 762명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중 700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의 측정도구는 사회적지지 검사를 위해 Nolten(1994)의 Student Social Support

* 본 논문은 2011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Scale을 번역한 “학생사회적지지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이미라(2000)의 사회적지지 지각척도를 사용하였고, 자기효능감 검사를 위해 차정은(1997)의 것을 김아영(1997)이 수정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진로성숙도를 검사하기 위해서 이기학(1997)이 개발한 진로성숙도 척도를 사용하였고 자료분석은 SPSS for Windows 12.0에 의해 상관분석, 단순회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지지(부모, 교사, 친구)와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사회적지지(부모, 교사, 친구)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가 높았으며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지지(부모, 교사, 친구)는 진로성숙도 전체와 하위요인인 결정성, 확신성, 준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지지(부모, 교사, 친구)수준이 높을수록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의 전체와 하위요인인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의 모든 변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수준이 높을수록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지지(부모, 교사, 친구)는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지지(부모, 교사, 친구)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회적지지(부모, 교사, 친구)와 진로성숙도에서 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를 나타내어 사회적지지(부모, 교사, 친구)는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다시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지지(부모, 교사, 친구),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는 서로 깊은 관련이 있으며 자기효능감은 사회적지지(부모, 교사, 친구)와 진로성숙도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부모, 교사, 친구의 사회적지지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의미 있는 타인들로부터 받는 외부자원인 사회적지지가 자기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나타내는 개인내적자원인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이를 토대로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및 가설	4
II. 이론적 배경	5
1. 사회적지지	5
2. 자기효능감	8
3. 진로성숙도	10
4.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12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6
1. 연구대상	16
2. 연구도구	17
3. 연구절차	20
4. 자료처리	20
IV. 연구결과 및 해석	22
1.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22
2.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	23
3.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25
4.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29
5.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30
6.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31



The logo of Jeju National University is a circular emblem. It features a stylized flame or leaf shape in shades of blue, green, and grey. Below this shape is a purple 'J' that forms the right side of the circle. In the center of the 'J' is a book icon with the text 'JEJU 1952' underneath it. The words 'JEJU NATIONAL UNIVERSITY' are written in a semi-circle at the top, and '제주대학교' is written in a semi-circle at the bottom.

V. 논의 및 결론	39
참고문헌	43
Abstract	48
부 록	51

표 목 차

<표Ⅲ-1> 인구학적 통계	16
<표Ⅲ-2> 사회적지지 척도 문항구성과 신뢰도	17
<표Ⅲ-3> 자기효능감 척도 문항구성과 신뢰도	18
<표Ⅲ-4> 진로성숙도 척도 문항구성과 신뢰도	19
<표Ⅳ-1>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22
<표Ⅳ-2>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	23
<표Ⅳ-3> 사회적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25
<표Ⅳ-4> 부모지지가 진로성숙도(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26
<표Ⅳ-5> 교사지지가 진로성숙도(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27
<표Ⅳ-6> 친구지지가 진로성숙도(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28
<표Ⅳ-7>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29
<표Ⅳ-8>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30
<표Ⅳ-9> 사회적지지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31
<표Ⅳ-10> 부모지지와 진로성숙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32
<표Ⅳ-11> 교사지지와 진로성숙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34
<표Ⅳ-12> 친구지지와 진로성숙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35
<표Ⅳ-13> 사회적지지와 진로성숙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37

그림 목 차

[그림 II-1] 효능기대감과 결과기대감의 차이 Bandura(1977)	9
[그림 IV-1] 부모지지와 진로성숙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32
[그림 IV-2] 교사지지와 진로성숙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33
[그림 IV-3] 친구지지와 진로성숙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35
[그림 IV-4] 사회적지지와 진로성숙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3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행복한 삶을 설계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매 순간마다 삶의 가치와 방향에 따라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자신의 적성을 알고 능력을 개발하여 그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적성과 흥미에 맞는 올바른 진로의 선택은 가치관과 태도, 정신적, 신체적 건강 등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아실현을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 행복한 삶이 실현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진로는 전 생애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하지만 형식적 교육의 마지막 단계인 고등학생 시기에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한다. 진로발달이론에 의하면 고등학교 단계는 진로목표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는 진로준비기로 자율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에 대해서 탐색해나가야 하는 발달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은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인해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를 심도 있게 탐색하기 보다는 성적에 맞추어서 전공을 선택하고 대학을 진학한다. 그렇기에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전공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또 다시 고민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와 관련하여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처해나갈 수 있는 준비성인 진로성숙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의 진로지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희영(2003)은 진로성숙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을 크게 인구통계학적 변인, 개인·심리적 변인, 가족관련 변인으로 분류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연령·성과 관련된 변인이고 개인·심리적 변인은 지능, 자아개념(자아존중감), 내외통제성, 일역할 중요도, 직업가치, 진로의사 결정 자기효능감과 의사결정 양식과 관

런된 변인이며, 가족 관련변인은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결혼상태, 부모의 영향과 같은 구조적 변인과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심리적 분리와 애착과 관련된 과정적 변인이다. 이처럼 진로성숙은 어느 한 변인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내적·외적인 많은 변인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성숙과 관련된 외적인 변인으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그 중 사회적 지지의 영향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 사회적지지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인 인식의 정도가 개인의 진로발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Chope, 2001; 박지은, 2005, 재인용). 사회적지지는 의미 있는 타인들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자원이 개인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인간 발달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

한수현(2003)의 연구에서 타인들에 의해 제공된 자원인 사회적지지가 심리적 적응에 도움이 되고, 좌절을 극복하도록 하고, 문제해결에 대한 도전을 받아들이도록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적 지지는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였다. 노미순(1999)의 연구에서도 가족과 친구, 교사 등 가까운 주변인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가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과 진로 성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봉환(1997)은 진로미결정의 원인과 비탐색의 원인이 사회적 지지가 미흡한데서 그 원인을 보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지지는 진로발달에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며, 구체적으로 의미 있는 타인인 부모, 교사, 친구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가 개인의 진로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개인의 내적 자원인 자기효능감 또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된다(남미숙, 1998). 자기효능감이란 Bandura(1997)에 초기이론에 따르면 어떤 특정 과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얼마나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이기학(1997)은 진로미결정의 원인을 자기효능감의 부족으로 보았고, 이은경(2000)도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에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다. 김현숙(2001)에 의하면 중학생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백남근(2002)도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게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진로의 선택은 입시점수가 아닌 자신의 흥미, 적성 그리고 자신이 선택해야 할 직업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진로선택의 준비정도인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변인들을 고려하여 진로지도가 이루어 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동안의 연구에서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져 왔다. 하지만 사회적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로 두 변인만의 관계를 본 연구가 대부분이며,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적지지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영향만을 미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또한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진로성숙도를 높이는데 관계 할 것이라는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세변인간의 관계 및 영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을 설정하여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간의 어떠한 관계와 영향이 있는지 분석하고, 자기효능감이 사회적지지와 진로성숙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적지지와(부모, 교사, 친구)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는 상관계수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사회적지지(부모, 교사, 친구)는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사회적지지(부모, 교사, 친구)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5. 사회적지지(부모, 교사, 친구)와 진로성숙도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가?

가설 1. 사회적지지와(부모, 교사, 친구)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는 상관계수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사회적지지(부모, 교사, 친구)는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사회적지지(부모, 교사, 친구)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사회적지지(부모, 교사, 친구)와 진로성숙도에서 자기효능감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개념 및 사회적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사회적지지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떠나서 살아 갈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며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의 사회적지지는 인간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촉진시킨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중반에 예방 심리학이 대두되면서 본격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며, 사회적 지지개념이 이론적으로 도출된 것이 아니어서 연구자마다 변인에 대한 개념 및 조작적 정의, 측정 방법에 있어서 상이한 접근을 하고 있다 (Troits, 1982).

Cobb(1976)는 사회적지지를 돌봄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게 하는 존경, 지지, 대화, 상호 의무가 있는 그룹에 속한 구성원임을 믿게 하는 것 이라고 하였고 Kajian 등(1997)은 사회적 지지를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을 돌봐주고 사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는 사람의 존재 또는 이용가능성으로 정의하였다. Antonucci(1980)는 사회적지지를 애정, 긍정, 도움의 요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한 대인관계적 협상이라고 정의하면서 애정은 좋아함, 동경, 존경, 사랑의 표현을, 긍정은 어떤 행동이나 진술에 대한 동의 또는 알고 있음의 표현을, 도움은 물건, 돈, 정보, 시간 등을 포함한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거래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고 House(1981)는 사회적지지를

정서적 관심, 도구적 도움, 정보, 칭찬 중 한 개 또는 둘 이상이 포함된 대인관계적 거래라고 하였다(한수현, 2003, 재인용).

Hoberman(1983)은 사회적 지지란 광의의 개념으로 볼 때 타인들로부터 제공되는 각종 자원을 일컬으며 가족, 친구, 이웃, 교사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도구나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물질적지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충고를 해주는 것과 관련되는 정보적지지, 정서적 공감을 표현하거나 정서표출을 도와주고 존경과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과 관련되는 정서적지지, 자신감을 심어주거나 타인에게 비취진 자신을 봄으로써 자신을 평가하는 자존감 지지의 4가지 형태로 나누었다(이현진, 2009 재인용).

국내 연구자들의 정의를 보면 성영혜(1993)는 사회적 지지를 타인들에 의해 제공되는 자원이라 정의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 감정의 표현, 타인의 행동이나 지각의 인정, 타인에 대한 상징적 또는 물질적 도움의 제공 중 하나나 그 이상을 포함한 대인 관계적 거래를 통하여 한 개인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정성인(1998)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개인이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으로서 사랑, 존중, 인정, 상징적 또는 물질적 도움을 말하며 최성열(2001)은 부, 모, 친척을 포함한 형제, 친구, 교사 등을 포함한 의미 있는 타인들로부터 받는 애정이나 신뢰, 정보, 물질적 원조, 자기보고 등 대인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 자원으로 정의하였다.

이상의 정의들을 종합해 볼 때 사회적지지는 의미 있는 타인들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자원이 개인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인간 발달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지원(1985)은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사람들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가 사회적 지지라고 정의하면서 사회적 지지를 사회적 지지망의 기능적 속성과 구조의 속성을 통해 실제상황에서 제공 받는 지지(상황중심적지지)와 사회망의 구성원을 통해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자존감 지지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 및 지지욕구의 충족 정도에 대한 지각정도로 나누

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객관적인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객관적인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자신이 필요로 할 때 주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적응을 예언하는 객관적인 사회적 지지보다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더 중요하며, 개인이 받는 지지가 아닌 지각된 지지가 대처의 효능성, 적응적 결과 및 심리적, 신체적 안녕에 대한 예언적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Sarason, Pierce, Shearin, Sarason & Waltz, 1991; 조명실, 2006, 재인용).

또한 (Torits, 1982)는 사회적으로 제공받는 지지가 어떤 것이냐 하는 사회적 지지의 내용과 누구에게서 제공된 것이냐 하는 사회적 지지의 제공원을 파악하지 못하면,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안녕과 적응에 어떠한 기능을 하는 지에 관해 제대로 알 수 없으며, 사회적 지지의 내용과 지지원이 지지의 절대적인 양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가 어떤 것이냐 하는 사회적 지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지지와 개인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지지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수민, 1987) 연구에서 청소년은 부모, 형제, 친척, 친구, 교사, 이웃 등의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적 세계 속에서 생활하며 이들은 청소년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은 어머니, 아버지, 친구, 교사 등이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타인이며,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주요한 사람임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관점에서 보고 고등학생에게 의미 있는 타인을 부모, 교사, 친구로 선정하여 그들로부터 받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이론은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 영역과 환경 속에서 연구되어 왔고,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긍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학습동기 영역에서 그 관심이 증대되어 왔고(Pintrich & Schunk, 1995; 이은경, 2003, 재인용) 최근에는 진로 교육을 연구하고 있는 여러 학자들이 직업적 행동과 진로 상담에 자기효능감의 잠재적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Lent, Hackett, Betz; 남미숙, 1998, 재인용).

(Bandura, 1997)는 자기효능감을 주어진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가능성에 대한 신념으로 원하는 결과에 대한 개인의 능력인지로 라고 하였으며, 행동의 선택, 수행, 그리고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자기효능감을 행동 및 행동변화의 주요 매개요인으로 보았다. 즉 자기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없을수록 어려운 환경에서 포기를 쉽게 하며, 이와 반대로 특정과제에서 자기 효능감이 강할수록 그 과제에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그러한 행동을 지속하는 시간도 길다고 하였다. 또 한 개인의 성격구조 특징이나 요소가 아니라 인성의 역동적 양상으로 보았으며, 자기효능감은 그것이 개인-환경 상호작용과 개인의 독특한 특징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성 또는 성격구조가 쉽게 변한다고 하였다.

윤미애·오윤자(2005)는 자기효능감이 행동을 선택하고 지속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중의 하나라고 했으며, 안순자(1997)는 자기효능감을 자기 자신을 얼마나 유능한, 능력 있는, 효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와 같은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유능성, 효능성, 자신감을 의미한다고 했다. 박은영(1999)은 자기효능감은 애매하고 예상할 수 없는 긴장되는 상황에서 개인이 특별한 행동을 잘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인지적 판단으로 정의하고 개인이 처한 상황, 개인이 취하는 행동, 그리고 개인의 인지적 판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의 조작적 개념은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이론(self efficacy theory)에서 효능감기대(efficacy expectation)과 결과기대감(outcome expectation)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 II-1] 효능기대감과 결과기대감의 차이 Bandura(1977)

[그림 II-1]에서 나타났듯이, 결과기대감은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를 수반할 것이라는 평가를 의미한다. 즉 하나의 주어진 행동이 어떤 확실한 결과를 유출할 것이라는 개인의 추측을 의미하는 것이다. 효능기대감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한다. 즉 결과를 생산해 내는데 요구되는 행동을 자신이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지에 대한 확신감을 의미하는 것이다(홍혜영, 1995, 재인용).

Bandura(1977)는 일반적으로 행동을 결정하는데 효능기대감이 결과기대감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고 효능기대감이 자기효능감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이 효능기대감이 결과기대감보다 동기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어떤 결과를 이르게 될지 알아도 자신이 그런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면 결과기대감은 행동 동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박지은(2005)는 효능성에 대한 기대는 성취상황에서 개인으로 하여금 활동을 선택하고, 노력을 투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끈기를 보이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며, 효능성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이고 클수록 그 개인은 과제수행을 할 때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많은 노력을 투여하고 더욱 끈기 있게 매달릴 것이라고 하였다.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이 성공경험, 대리적 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 상태 및 정서적 상태와 같은 네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고 보았고 네 가지 정보적 근원 중에 성공경험이 효능감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특정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개인의 믿음으로 자신이 스스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3. 진로성숙도

진로성숙의 개념은 청소년의 직업 흥미의 발달을 연구했던 Carter(1940)와 직업 행동은 나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제안한 Strong(1943)에 의해 시작되었다. Dysinger(1950)는 직업선택이나 직업 결정과 같은 용어의 사용을 피하기 위해 진로성숙과 같은 용어의 필요성을 최초로 지적한 발달 심리학자이고, Super(1955)의 ‘직업성숙의 차원과 측정’ 이라는 논문에서 처음으로 진로성숙이라는 용어가 소개되었다고 한다(이희영, 2003).

Super(1955)는 진로성숙이란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연령단계인 탐색기부터 쇠퇴기까지의 발달단계 중에서 개인이 자신의 발달단계에서 이루어야할 직업적 발달 과업에 대한 준비도라고 하였다. 반면에 Crites(1973)는 Super(1955)의 정의를 비판하고 진로성숙을 동일한 연령층의 학생들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직업준비의 정도라고 개념화 하였으며 Gribbons와 Lohnes(1964)는 진로성숙을 진로선택이나 진로계획에서의 준비도의 개념으로 보았고 진로성숙 수준은 개인의 내적, 외적 여건에 따라 개인차가 있다고 보았다(김설아, 2010, 재인용).

위의 학자들의 입장을 보면 진로성숙이란 발달적 개념으로서 어느 시기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다음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정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진로성숙도를 이해하고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진로 발달에 대한 이해가 선행 되어야 하겠다. 진로발달이론은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제시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발달이론의 주요 학자인 Ginzberg와 Super의 진로발달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Ginzberg와 그의 동료들(1951)은 인간의 신체와 정신이 발달하는 것처럼 직업에 대한 지식, 태도, 기능도 어려서부터 시작하여 일련의 단계를 거치면서 발달한다고 하였다. 개인은 자신의 욕구, 능력, 가치관, 흥미 등의 내적요인과 가정

환경, 부모의 영향, 직업조건 등의 외적 요인 간의 타협을 통해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였고 이러한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확대된다고 하였다. 직업선택의 과정을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 현실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중요시 여기는 환상기(6세~11세), 흥미와 능력 및 가치관 등을 고려하기 시작하는 잠정기(11세~17세), 개인요인과 현실요인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현실기(18세~성인초기)의 세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고등학생은 Ginzberg의 진로발달 단계에 따르면 잠정기에 해당되며 자신의 흥미와 능력, 가치관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잠정적으로 결정해야하는 시기이다.

Super(1953)는 진로발달은 인간발달의 한 측면으로써 개인의 심리적·생리적 속성과 의미 있는 타인을 포함하는 환경 요인에 의해서 직업발달을 해나가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일생동안 장기적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였다. 진로발달의 단계를 성장기(0세~14세), 탐색기(15세~24세), 확립기(25세~44세), 유지기(45세~64세), 쇠퇴기(65세 이상)의 5단계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고등학생들은 Super의 탐색기(15세~24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탐색기(15세~24세)는 다시 잠정기(15세~17세), 전환기(18세~21세), 시행기(22세~24세)의 세 단계로 구분되어진다.

이런 발달이론에 비추어 보면 고등학생은 진로발달의 탐색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시기에는 자신의 욕구와 능력 및 환경적인 요인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진로성숙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진로성숙도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김충기(2000)는 진로성숙이란 개인의 직업적 소양, 가치, 지식, 기술 등의 습득을 통해 직업 적성에 부합되는 행동과 판단력을 낳는 과정을 직업발달이라 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온 결과를 진로 성숙이라 정의한다. 정동환(2001)은 진로성숙은 특정 개인이 자아와 일의 세계를 기초로 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의 상대적 준비의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기학(1997)은 진로태도성숙을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목적성, 확신성 등 5개의 하위차원으로 분류했다. 첫째, 결정성은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고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이 선택하려고 하는 진로 및 직업이 어느 정도 확실히 정해져 있는 가를 의미한다.

둘째, 목적성은 개인의 진로를 선택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차원으로 욕구와 현실에 타협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즉 진로선택 시 경제적인 보상, 승진기회, 장래희망 등과 같은 현실적인 요소보다는 일을 통한 자기개발, 대인관계 등과 같은 측면을 선호하는 정도를 알아 볼 수 있다.

셋째, 확신성은 자신의 진로선택 문제에 관해 어느 정도 믿음과 확신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앞으로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개인적 믿음과 확신 정도를 측정하는 차원이다.

넷째, 준비성은 진로 결정에 필요한 사전이해, 준비 및 계획정도, 그리고 직업 및 진로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현명한 진로선택에 필요한 진로정보, 수집능력, 의사결정능력의 수준을 나타내는 차원이다.

다섯째, 독립성은 진로선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의 진로문제를 자신이 주체적으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타인에게 의존하여 결정하는가의 태도를 측정하는 차원이다.

진로성숙도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조금씩 다르지만 견해를 종합해보면 진로성숙도란 진로선택이나 진로계획에서의 준비도로 동시에 한 개인이 속해있는 연령 단계에서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와 관련하여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처해나갈 수 있는 능력수준 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기학(1997)의 진로태도성숙 척도를 사용하여 진로성숙도를 결정성, 목적성, 준비성, 확신성, 독립성의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4.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가. 사회적지지와 진로성숙도

김봉환(2001)은 개인을 둘러싼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의 사회적 요인이 직업선택과 진로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외적인 영향으로서 사회적 지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인 인식의 정도가 개인

의 진로발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며 진로결정에서 가족 내의 변화와 일의 상호 교환 증가 등이 새로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Chope, 2001; 박지은, 2005, 재인용). 기존의 연구에서 가족과 친구·교사 등 가까운 주변인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가 그들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과 진로성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한수현, 2003) 사회적지지란 부모, 교사, 친구 등의 의미 있는 타인들로부터 받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이다.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를 보면 노미순(1999)의 연구에서 직업학교 교사의 사회적지지인 평가적지지, 정보적지지가 일반계 직업과정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성숙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은경(2003)은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은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보다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부모, 친구, 교사에게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받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진로성숙도 역시 높아짐을 의미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수현(2003)의 연구에서도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집단의 진로미결정 수준이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집단보다 낮으며 진로태도성숙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권용미(2003)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이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송재영(2003)은 사회적 지지의 정서적지지와 자존감지지가 진로탐색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사회적 지지가 자신에 대해서나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도와주고 이러한 사고는 긍정적인 행동을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에 따른 진로와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사회적 지지를 통한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는 자아개념 형성 및 행동을 촉진시켜 진로 준비도를 높여주고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

자기효능감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특정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개인의 믿음으로 자신이 스스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진로성숙 및 진로태도의 시도와 실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될 수 있을 것이다.

진로분야에 대한 자기효능감 이론의 적용은 Betz와 Hackett(1981)의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진로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고 진로선택상의 제한을 설명하려는 연구를 계획하였다. 그러한 의도로 직업적 자기효능감척도(Occupational Self-Efficacy scale, OSES)를 제작하여 연구하였다. 이후 여러 연구를 통해 자기효능감이 직업 선택 및 진로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남미숙, 1998; 현정환, 1993), 이어진 여러 연구에서도 학업수행과 진로 의사 결정 의지 및 행동의 예언자로 자기효능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정순애(1998)는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 및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분석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도 크고 학교생활 적응도 잘한다고 하였고 김아영(1998)의 연구에서는 효능감을 학습에 적용시켰는데 자기효능감이 높을 때 학업성취가 높게 나타났다. 박지은(2005)의 연구에서는 진로행동준비행동의 관계변인으로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 전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은희(2007)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혀내었다. 또한 이혜진(2005)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모두가 직업적 흥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Taylor와 Betz(1983)는 자기효능감을 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으로 간주하면서 진로탐색을 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언급하였다(최은희, 2007, 재인용).

이상과 같이 자기효능감은 진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고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특정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개인의 믿음으로 이러한 믿음은 특히 청소년기의 긍정적인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청소년들이 의미 있는 타인들로부터 얻는 평가나 사회적지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발달되어 갈 수도 있다.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의 상관에 대한 선행연구로 Barrera(1981) 가족의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로부터 경험한 사랑과 수용, 안정의 느낌은 스트레스 생활 사건에 직면할 때 행동장애를 막아주며, 개인의 자기효능감과 대처 전략을 증진시키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하였다(허행식, 2004, 재인용).

신혜정(2005)은 청소년이 처한 환경에서 부모, 교사, 친구의 사회적지지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적응에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사회적지지를 강화시킴으로서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고 적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원희정(2006)의 연구에서도 사회적지지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칭찬, 소질인정, 인격존중, 공정한 평가, 가치 고양, 의사 존중을 많이 제공받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는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지지는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개인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로 볼 때 주변의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그리고 진로성숙도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는 자기효능감을 높여 청소년의 진로준비 형성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도내 재학중인 고등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조사되었고 확률적 표본추출법(probability sampling method)의 형태인 다단계 군집표본추출(multiple cluster sampling)을 활용하여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제주도내 소재하는 30개 고등학교 중 일반계 고등학교 6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4학교를 무선 표집 하여 각 학교에서 1학년 1학급, 2학년 1학급을 선정하여 총 762명의 1, 2학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 척도, 자기효능감 척도와 진로성숙도 척도 질문지를 실시하고 불성실한 답변과 무응답 설문지를 제외한 7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Ⅲ-1> 인구학적 통계

(n=700)

변인	문항구분	n(%)
성 별	남	407(58.1)
	여	293(41.9)
학 교	일반계고	454(64.9)
	전문계고	246(35.1)
학 년	1학년	353(50.4)
	2학년	347(49.6)
학 교 소 재 지	제주시	548(78.3)
	서귀포	152(21.7)

2. 연구도구

가. 사회적지지 척도

본 연구에서는 Nolten(1994)의 Student Social Support Scale을 번역한 “학생사회적지지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이미라(2000)의 사회적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생사회적지지척도”는 청소년과 관련된 주요한 사회체계로서 부모, 교사, 급우, 친구 등에 따라 4개의 하위 척도로 나뉘어 각 체계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하위 척도는 각 15문항이며 전체 총 60문항이다. 이 척도를 이미라는 각각의 사회적 지지에 있어서 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로 재구성하여 각 문항을 9문항씩 전체 27문항으로 수정·보완하였다. 이때 각 하위 영역은 문항 순서별 지지 영역에 해당한다.

각 문항의 점수는 27문항 모두 ‘전혀 아니다’(1점), ‘거의 아니다’(2점), ‘보통이다’(3점), ‘조금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하였다. 획득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27~135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회적지지 유형별 문항과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다음의 <표Ⅲ-2>와 같다.

<표Ⅲ-2> 사회적지지 척도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 요인	문항수	문항	Cronbach's α
부모지지	9	1~9	.92
교사지지	9	10~18	.93
친구지지	9	19~27	.91
사회적 지지 전체	27	1~27	.93

나. 자기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안정감 있는 개인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정은(1997)의 것을 김아영(1997)이 수정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도구는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의 3개의 하위척도로 총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점수는 24문항 모두 ‘전혀 아니다’(1점), ‘거의 아니다’(2점), ‘보통이다’(3점), ‘조금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하였다. 전체 24문항 중 9문항은 부정문항으로 1, 5, 8, 9, 13, 14, 15, 16, 20이며 이는 역 채점한다. 획득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24~12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자기효능감 유형별 문항과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다음의 <표Ⅲ-3>와 같다.

<표Ⅲ-3> 자기효능감 척도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 요인	문항수	문항	Cronbach's α
자신감	7	1,5,9,13,14,15,16	.79
자기조절효능감	12	2,3,6,7,10,11,12,18, 19,21,22,24	.84
과제난이도선호	5	4,8,17,20,23	.74
자기효능감 전체	24		.84

다. 진로성숙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이기학(1997)이 개발한 진로성숙도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진로성숙도 검사는 자아와 직업에 대한 개인적 이해와 선호도를 바탕으로 개인의 일생을 결정하는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다.

진로성숙도 검사의 하위 척도는 5가지로,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고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결정성, 개인의 진로를 선택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목적성, 자신의 진로선택 문제에 관해 어느 정도 믿음과 확신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확신성, 진로 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 준비 및 계획정도, 그리고 직업 및 진로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도를 나타내는 준비성, 진로선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독립성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문항의 점수는 47개의 문항 모두 ‘전혀 아니다’(1점), ‘거의 아니다’(2점), ‘보통이다’(3점), ‘조금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하였다. 전체 47문항 중 26문항은 부정문항으로 2, 4, 5, 6,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2, 24, 26, 28, 31, 39, 40, 41, 43, 47이며 이는 역 채점한다. 획득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47~235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진로성숙도 유형별 문항과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다음의 <표Ⅲ-4>와 같다.

<표Ⅲ-4> 진로성숙도 척도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 요인	문항수	문항	Cronbach's α
결정성	10	1~10	.90
목적성	8	11~18	.85
확신성	10	19~28	.80
준비성	10	29~38	.82
독립성	9	39~47	.82
진로성숙도 전체	47		.90

3. 연구절차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절차를 거쳤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선행연구 논문들의 분석과 참고서적을 고찰하여 이론적 배경을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고등학생(1,2학년)들을 대상으로 표집집단을 선정 후 검사의 실시는 표집대상 학교별로 해당 학교 교사를 검사 협조자로 선정하고 연구자가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검사하거나 협조자를 직접 만나서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고등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뒤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척도 질문지를 2010년 11월8일~11월19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4.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2.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사회적지지(부모, 교사, 친구),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진로성숙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사회적지지(부모, 교사, 친구)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적지지(부모, 교사, 친구)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기효능감을 종속변

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사회적지지(부모, 교사, 친구)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적지지(부모, 교사, 친구)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진로성숙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사회적지지(부모, 교사, 친구)와 진로성숙도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사용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유의하게 예언해야 한다. (2)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하게 예언해야 한다. (3)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유의하게 예언하는 회귀분석에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하게 예언하면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은 매개변인이 포함되었을 때 더 작게 나타나야 한다. 또한 매개효과는 완전매개와 불완전 매개로 나누어지는데 완전매개는 (3)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매개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면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는 경우에 말한다(김경희, 2009).

매개효과 검증 결과가 간접효과(Indirect Effect)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을 때도 유효한지 알아보기 위해, 간접효과 검증 방법인 Sobel Test를 사용하였다. Sobel Test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매개효과 Z점수를 구할 수 있는데, Z점수의 절대값이 1.96 이상일 경우 $p < .05$ 수준, 2.58 이상일 경우 $p < .01$ 수준, 3.30 이상일 경우 $p < .001$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본다(안자영, 2009).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하위척도에 대한 기술 통계치를 분석하였다.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IV-1>과 같이 나타났다.

<표IV-1>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n=700)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지지	부모지지	34.14	7.21
	교사지지	28.29	7.56
	친구지지	32.83	6.59
	전체	95.26	16.40
자기효능감	자신감	20.77	5.29
	자기조절	38.62	6.71
	과제난이도	14.15	3.66
	전체	73.54	11.48
진로성숙도	결정성	30.40	9.51
	목적성	25.48	6.44
	확신성	30.37	6.31
	준비성	36.10	6.59
	독립성	33.53	5.97
	전체	155.88	22.99

2.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간에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결과는 <표IV-2> 와 같다.

<표IV-2> 고등학생의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

(n=700)

	사회적지지				자기 효능감	진로성숙도					
	1. 부모 지지	2. 교사 지지	3. 친구 지지	4. 사회적 지지	5. 자기 효능감	6. 결정 성	7. 목적 성	8. 확신 성	9. 준비 성	10. 독립 성	11. 진로 성숙도
1	1										
2	.45**	1									
3	.41**	.29**	1								
4	.81**	.77**	.71**	1							
5	.26**	.29**	.33**	.38**	1						
6	.13**	.08*	.09*	.13**	.31**	1					
7	-.06	.03	.03	.00	.14**	.35**	1				
8	.24**	.13**	.25**	.27**	.57**	.45**	.22**	1			
9	.32**	.17**	.29**	.34**	.30**	.24**	.10*	.23**	1		
10	.02	-.03	.04	.01	.21**	.31**	.37**	.28**	.26**	1	
11	.20**	.12**	.21**	.23**	.46**	.78**	.61**	.66**	.54**	.64**	1

*p<.05, **p<.01

<표IV-2>를 보면 각 변인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지지는 진로성숙도($r=.20, p<.01$)전체와 정적인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별로 준비성($r=.32, p<.01$)의 요인과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보이고, 확신성($r=.24, p<.01$), 결정성($r=.13, p<.01$)의 순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교사지지는 진로성숙도($r=.12, p<.01$)전체와 정적인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으며 준비성($r=.17, p<.01$), 확신성($r=.13, p<.01$), 결정성($r=.08, p<.05$)의 순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친구지지는 진로성숙도($r=.21, p<.01$)전체와 정적인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으며 준비성($r=.29, p<.01$), 확신성($r=.25, p<.01$), 결정성($r=.09, p<.05$)의 순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사회적지지 전체는 진로성숙도($r=.23, p<.01$)전체와 정적인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으며 준비성($r=.34, p<.01$), 확신성($r=.27, p<.01$), 결정성($r=.13, p<.01$)의 순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r=.46, p<.01$)전체와 정적인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확신성($r=.57, p<.01$)과 가장 높은 정적상관이 있었고 결정성($r=.31, p<.01$), 준비성($r=.30, p<.01$), 독립성($r=.21, p<.01$), 목적성($r=.14, p<.01$)의 순으로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부모지지와 자기효능감($r=.26, p<.01$), 교사지지와 자기효능감($r=.29, p<.01$), 친구지지와 자기효능감($r=.33, p<.01$),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r=.38, p<.01$) 간에도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교사, 친구의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 수준이 높음을 보여준다.

3. 사회적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가. 사회적지지(부모, 교사, 친구)가 진로성숙도(전체)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가 진로성숙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적지지(부모, 교사, 친구)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진로성숙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각각 단순회귀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는 <표IV-3> 과 같다.

<표IV-3> 사회적지지가 진로성숙도(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n=700)

종속변수	독립변수	R ²	F	β	t
진로성숙도	부모지지	.04	29.59***	.20	5.44***
	교사지지	.01	9.79**	.12	3.13**
	친구지지	.04	32.34***	.21	5.69***
	사회적지지 전체	.05	38.07***	.23	6.17***

p<.01, *p<.001

<표IV-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지지가 진로성숙도($\beta=.20$, $p<.001$) 전체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 4%의 설명력을 나타내었고 교사지지가 진로성숙도($\beta=.12$, $p<.01$) 전체에 대한 영향력의 유의하였으며, 1%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또한 친구지지가 진로성숙도($\beta=.21$, $p<.001$) 전체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 4%의 설명력을 나타내었고 사회적지지 전체는 진로성숙도($\beta=.23$, $p<.001$) 전체에 대하여 5%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표IV-3>과 같이 사회적지지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영향력에서 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는 진로성숙도 전체에 대하여 유의미하게 영향력을 갖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나. 부모지지가 진로성숙도(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부모지지가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인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IV-4>와 같다.

<표IV-4> 부모지지가 진로성숙도(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n=700)

종속변수	독립변수	R ²	F	β	t
결정성		.02	11.88**	.13	3.45**
목적성		.00	2.25	.06	-1.50
확신성	부모지지	.06	43.81***	.24	6.62***
준비성		.10	79.70***	.32	8.93***
독립성		.00	.32	.02	.57

p<.01, *p<.001

<표IV-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인인 부모지지는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준비성($\beta=.32$, $p<.001$)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 10%의 설명력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확신성($\beta=.24$, $p<.001$), 결정성($\beta=.13$, $p<.01$)에 대한 영향력 또한 유의하였으며 각각 6%, 2%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표IV-4>와 같이 부모지지는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에 대한 영향력에서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준비성, 확신성, 결정성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다. 교사지지가 진로성숙도(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교사지지가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인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IV-5>와 같다.

<표IV-5> 교사지지가 진로성숙도(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n=700)

종속변수	독립변수	R ²	F	β	t
결정성	교사지지	.01	4.31*	.08	2.08*
목적성		.00	.72	.03	.85
확신성		.02	11.87**	.13	3.45**
준비성		.03	20.63***	.17	4.54***
독립성		.00	.64	.03	-.80

*p<.05, **p<.01, ***p<.001

<표IV-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인인 교사지지는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준비성($\beta=.17$, $p<.001$)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 3%의 설명력을 나타내었고 확신성($\beta=.13$, $p<.01$), 결정성($\beta=.08$, $p<.05$)에 대한 영향력 또한 유의하였으며 각각 2%, 1%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표IV-5>와 같이 교사지지는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에 대한 영향력에서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준비성, 확신성, 결정성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라. 친구지지가 진로성숙도(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친구지지가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인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IV-6>과 같다.

<표IV-6> 친구지지가 진로성숙도(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n=700)

종속변수	독립변수	R ²	F	β	t
결정성	친구지지	.01	5.50*	.09	2.35*
목적성		.00	.80	.03	.89
확신성		.06	47.55***	.25	6.90***
준비성		.09	65.04***	.30	8.07***
독립성		.00	1.33	.04	1.15

*p<.05, ***p<.001

<표IV-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인인 친구지지는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준비성(β=.30, p<.001)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 9%의 설명력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확신성(β=.25, p<.001), 결정성(β=.09, p<.05)에 대한 영향력 또한 유의하였으며 각각 6%, 1%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표IV-6>과 같이 친구지지는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에 대한 영향력에서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준비성, 확신성, 결정성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4.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가.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전체)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진로성숙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는 <표IV-7>과 같다.

<표IV-7>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n=700)

종속변수	독립변수	R ²	F	β	t
진로성숙도	자기효능감	.21	189.64 ^{***}	.46	13.77 ^{***}

^{***}p<.001

<표IV-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beta=.46$, $p<.001$) 전체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 21%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 전체에 대하여 유의미하게 영향력을 갖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나.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인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IV-8>과 같다.

<표IV-8>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n=700)

종속변수	독립변수	R ²	F	β	t
결정성		.10	73.53***	.31	8.58***
목적성		.02	13.02***	.14	3.61***
확신성	자기효능감	.32	334.17***	.57	18.28***
준비성		.09	70.12***	.30	8.37***
독립성		.04	31.33***	.21	5.60***

***p<.001

<표IV-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인인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확신성($\beta=.57$, $p<.001$)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 32%의 설명력으로 가장 큰 영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결정성($\beta=.31$, $p<.001$), 준비성($\beta=.30$, $p<.001$), 독립성($\beta=.21$, $p<.001$) 그리고 목적성($\beta=.14$, $p<.001$)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 각각 10%, 9%, 4%, 2%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표IV-8>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에 대한 영향력에서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확신성,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목적성에 대하여 유의미하게 영향력을 갖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5. 사회적지지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적지지(부모, 교사, 친구)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각각 단순회귀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는 <표IV-9>와 같다.

<표IV-9> 사회적지지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n=700)

종속변수	독립변수	R ²	F	β	t
자기효능감	부모지지	.07	50.63***	.26	7.12***
	교사지지	.09	65.62***	.29	8.10***
	친구지지	.11	82.26***	.33	9.06***
	사회적지지 전체	.14	117.71***	.38	10.85***

*** p<.001

<표IV-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지지가 자기효능감($\beta=.26$, $p<.001$)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 7%의 설명력을 나타내었고 교사지지가 자기효능감($\beta=.29$, $p<.001$)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 9%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또한 친구지지가 자기효능감($\beta=.33$, $p<.001$)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 11%의 설명력을 나타내었고 사회적지지 전체는 자기효능감($\beta=.38$, $p<.001$)에 대하여 14%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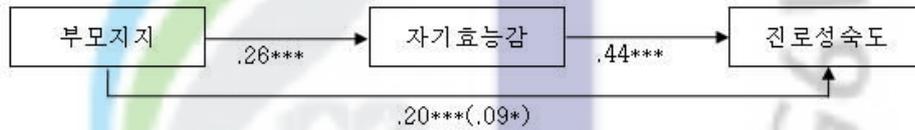
<표IV-9>과 같이 사회적지지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영향력에서 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는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유의미하게 영향력을 갖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6. 사회적지지와 진로성숙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사회적지지(부모, 교사, 친구)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사용하였고, 매개효과 검증 결과가 간접효과(Indirect Effect)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을 때도 유효한지 알아보기 위해 간접효과 검증방법인 Sobel Test를 사용하였다.

가. 부모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부모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IV-10>과 같으며, 도식화하여 제시한 결과는[그림IV-1]과 같다.



[그림 IV-1] 부모지지와 진로성숙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표IV-10> 부모지지와 진로성숙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변수	R ²	F	β	t
(n=700)						
1단계	→					
	부모지지	자기효능감	.07	50.63***	.26	7.12***
2단계	부모지지	진로성숙도	.04	29.59***	.20	5.44***
3단계	부모지지	진로성숙도	.22	98.73***	.09	2.52*
	자기효능감				.44	12.69***

*p<.05, ***p<.001

→ sobel test Z : 8.61***

<표IV-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부모지지와 매개변인인 자기효능감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하였고(β=.26, p<.001), 2단계에서 부모지지와 종속변인인 진로성숙도에 대한 영향력도 유의하였다.(β=.20, p<.001) 그리고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대한 영향력도 유의하였으며(β

=.44, $p < .001$), 부모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대한 영향력이 2단계($\beta = .20$)보다 3단계($\beta = .09$)에서 줄어들었다. 따라서 부모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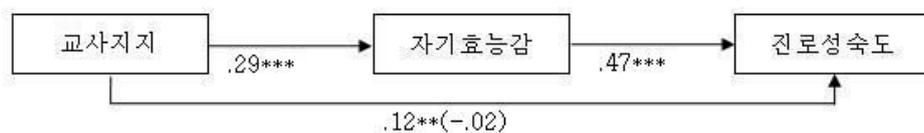
이는 부모지지가 단독으로 진로성숙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매개변인인 자기효능감이 통제되었을 때 부모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이 부분 매개하여 진로성숙도에 간접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개효과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¹⁾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Sobel의 Z값은 8.61로 부모지지와 진로성숙도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IV-10>과 같이 부모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부모지지가 직접적으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기여를 함으로서 이러한 과정이 진로성숙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나. 교사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사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IV-11>과 같으며 도식화하여 제시한 결과는 [그림IV-2]와 같다.



[그림 IV-2] 교사지지와 진로성숙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1)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에 대한 Sobel Test 검증은 다음의 인터넷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http://www.danielsoper.com/statcalc/calc31.aspx> (2011. 3. 11)

<표IV-11> 교사지지와 진로성숙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n=700)

변수	R ²	F	β	t
1단계 →				
교사지지 → 자기효능감	.09	65.62***	.29	8.10***
2단계				
교사지지 → 진로성숙도	.01	9.79**	.12	3.13**
3단계				
교사지지 → 자기효능감			-.02	-.56
자기효능감 → 진로성숙도	.21	94.88***	.47	13.32***

p<.01, *p<.001

→ sobel test Z : 9.51***

<표IV-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교사지지와 매개변인인 자기효능감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하였고($\beta=.29, p<.001$), 2단계에서 교사지지와 종속변인인 진로성숙도에 대한 영향력도 유의하였다($\beta=.12, p<.01$). 그리고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대한 영향력도 유의하였으며($\beta=.47, p<.001$), 교사지지와 진로성숙도에 대한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교사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지지와 단독으로는 진로성숙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매개변인인 자기효능감이 통제되었을 때 교사지지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지지와 진로성숙도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이 완전 매개하여 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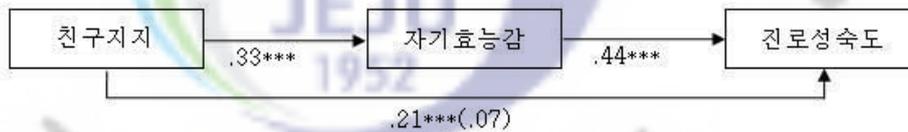
매개효과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Sobel의 Z값은 9.51로 교사지지와 진로성숙도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완전매개효과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IV-11>과 같이 교사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완전매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교사지지가 직접적으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기여를 함으로서 이러한 과정이 진로성숙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다. 친구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친구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IV-12>과 같으며, 도식화하여 제시한 결과는[그림IV-3]과 같다.



[그림 IV-3] 친구지지와 진로성숙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표IV-12> 친구지지와 진로성숙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n=700)

변수	R ²	F	β	t
1단계 →				
친구지지 → 자기효능감	.11	82.26***	.33	9.07***
2단계				
친구지지 → 진로성숙도	.04	32.34***	.21	5.69***
3단계				
친구지지 → 진로성숙도	.21	96.99***	.07	1.90
자기효능감 → 진로성숙도			.44	12.43***

*** p<.001

→ sobel test Z : 9.24***

<표IV-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친구지지가 매개변인인 자기효능감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하였고($\beta=.33, p<.001$), 2단계에서 친구지지가 종속변인인 진로성숙도에 대한 영향력도 유의하였다.($\beta=.21, p<.001$) 그리고 3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대한 영향력도 유의하였으며($\beta=.44, p<.001$), 친구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대한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친구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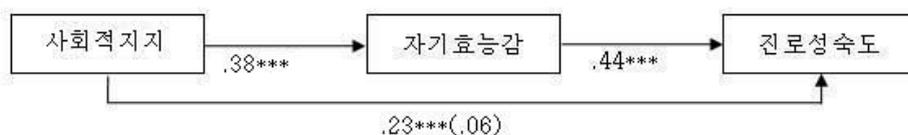
이는 친구지지가 단독으로는 진로성숙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매개변인인 자기효능감이 통제되었을 때 친구지지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친구지지와 진로성숙도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이 완전 매개하여 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매개효과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Sobel의 Z값은 9.24로 친구지지와 진로성숙도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완전매개효과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IV-12>과 같이 친구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완전매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친구지지가 직접적으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기여를 함으로서 이러한 과정이 진로성숙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라. 사회적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사회적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IV-12>과 같으며, 도식화하여 제시한 결과는[그림IV-4]과 같다.



[그림 IV-4] 사회지지와 진로성숙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표IV-13> 사회적지지와 진로성숙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n=700)

변수	R ²	F	β	t
1단계 →				
사회적지지 → 자기효능감	.14	117.71***	.38	10.85***
2단계				
사회적지지 → 진로성숙도	.05	38.06***	.23	6.17***
3단계				
사회적지지 → 자기효능감	.22	96.46***	.06	1.67
자기효능감 → 진로성숙도			.44	12.12***

***p<.001

→ sobel test Z : 8.93***

<표IV-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사회적지지가 매개변인인 자기효능감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하였고($\beta=.38, p<.001$), 2단계에서 사회적지지와 종속변인인 진로성숙도에 대한 영향력도 유의하였다.($\beta=.23, p<.001$) 그리고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대한 영향력도 유의하였으며($\beta=.44, p<.001$), 사회적지지와 진로성숙도에 대한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적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지지와 진로성숙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매개변인인 자기효능감이 통제되었을 때 사회적지지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지지와 진로성숙도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이 완전 매개하여 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매개효과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Sobel의 Z값은 8.93로 사회적지지와 진로성숙도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완전매개효과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IV-13>과 같이 사회적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완전매

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지지가 직접적으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기여를 함으로서 이러한 과정이 진로성숙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과정에서 밝혀진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지지(부모, 교사, 친구)와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세변인은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사회적지지와 진로성숙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은 노미순(1999), 권용미(2002), 구혜선(2002), 오은경(2003), 한수현(2003), 의 연구결과와 부분 일치하며,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모든 하위 변위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은 이은경(2000), 백남근(2002), 송춘희(2004), 김미숙(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의 정적인 상관관계는 허행식(2004), 박지은(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부모, 교사,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가 높고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 일수록 진로에 대한 자신감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사회적지지(부모, 교사, 친구)는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지지와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최은희(2007)의 연구와 일치한다. 조명실(2007)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와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이지만 이경선(2009)의 연구에서 친구지지가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인 것과 유사하고 이현진(2009)의 연구에서 친구지지, 어머니지지가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인 것과 유사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부모, 교사, 친구의 긍정적인 지지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가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모, 교사, 친구 등의 의미 있는 타인이 고등학생에게 다양한 정보와 물질을 제공하고 어려움에 귀 기울이며 지지를 해 주어 자신이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게 되고 진로와 관련하여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처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등학생들의 효과적인 진로탐색을 위해서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의 의미 있는 타인인 부모, 교사, 친구가 적극적이고 관심어린 지지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김현숙(2001), 하성언(2005), 김미숙(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모으는 직업준비과정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진로성숙도가 향상된 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진로교육이나 지도를 할 때에 자기효능감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막연한 생각을 갖는 것에 더 무르지 않고 자신의 현실적인 능력을 향상시켜 바람직한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넷째, 사회적지지(부모, 교사, 친구)는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와 친구지지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다고 나타난 허행식(2005)의 연구와 부분일치하고, 이현영(2008)의 연구에서 친구지지와 교사지지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와도 부분 일치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부모, 교사, 친구의 긍정적인 지지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자기효능감 또한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의미 있는 타인인 부모, 교사, 친구가 다양한 정보와 물질을 제공하고 자신이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여 긍정적인 관계형성이 이루어 질 때 고등학생으로 하여금 스스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키울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자신의 문제를 잘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위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지지(부모, 교사, 친구),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해보았다. 자기효능감은 부모지

지와 진로성숙도를 부분매개 하였고 교사지지, 친구지지와 진로성숙도를 완전매개 하였으며 사회적지지 전체와 진로성숙도를 완전매개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적지지(부모, 교사, 친구)가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다시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모, 교사, 친구의 긍정적인 지지는 고등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인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하여 진로에 대한 준비도를 촉진시켜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더욱 증진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인 사회적지지(부모, 교사, 친구)와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하여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관심과 사랑인 사회적지지(부모, 교사, 친구)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인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이것을 매개로하여 다시 진로성숙도수준을 높여가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의미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이는 관심과 사랑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신념을 높이며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등학생 시기에 있어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필요할 때 부모, 교사, 친구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정서적인 안녕감은 물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진로지도에 있어서 의미 있는 타인인 부모, 교사, 친구의 지지를 높여 어려운 일에 부딪히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지지자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여 자기효능감 수준을 높이면서 결과적으로는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해가 선행되어 체계적인 진로상담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지역의 고등학생 및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를 통해 연구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결과가 응답자의 반응에 의해 왜곡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기보고식 질문지와 사회적지지 측면에서 부모, 교사, 친구들의 관찰자보고식 질문지를 조합하여 보다 타당하고 객관적인 측정방법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사회적지지(부모, 교사, 친구)와 진로성숙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회귀분석으로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경우 측정오차가 고려되지 않고 모델의 적합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표집을 확대하여 다른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정교한 모델을 가정하여 제시하고 이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사용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권용미(2003).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지지가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혜선(2002).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지지 및 진로성숙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2009).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0(2), p.933-945.
- 김미숙(2008).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봉환, 정영철, 김병석(2003) **학교진로상담 2판**: 학지사.
- 김설아(2010). **부모지지와 진로의사결정 유형 및 진로성숙도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리(2004).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민(1987). **사회조직망내의 대인관계에 대한 아동의 지각**.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1997). **자기효능감 및 하위척도들의 학교별 성별 평균 및 표준편차**. 미간행본.
- 김충기(2000).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서울 동문사.
- 김현숙(2001).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미숙(1998). **초등학생의 진로 자아효능감과 관련 변연과의 관계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미순(1999).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길(2001).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용두(2008). 사회적지지, 자존감, 진로포부 간의 관계 모형 검증: 집단자존감과 개인자존감의 매개 역할.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원(1985).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은(2005).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남근(2002). 부모와의 의사소통유형과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재영(2003).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춘희(2004).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진로발달 수준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영혜(1993). 부모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혜정(2005). 청소년의 학교 급별(초,중,고)에 따른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및 적응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미경(1986). 아동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순자(1997). 자기성장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안자영(2009). 청소년의 분노와 신체화의 관계에서 인지적 왜곡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희정(2006).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미해·오윤자 (2005). 아버지 자녀의 의사소통유형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 아동교육 14(1). p.115-129

- 이경선(2009).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학(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자아존중감 직업가치 내외통제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복원(2008). **청소년의 애착요인 및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희(2005). **대학생의 진로장애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진로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의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송이(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부모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2), p.61~71.
- 이순정(2010). **부모양육태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2000).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영(2008). **중학생이 지각한 심리적 가정환경과 사회적지지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현진(2009).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진(2005). **성격과 직업적 흥미와의 관계에서 사회인지적 능력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희영(2003). **진로성숙과 상담,** 서울: 학지사.
- 임유진(200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동환(2001). **진로지도프로그램적용이 학습된 무력감을 지닌 중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성인(1998). **아동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 및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순애(1998).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 및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명실(2006).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차정은(1996).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자(2007).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성열(200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희(2007).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와의 관계분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하성현(2005). 부모, 친구와의 애착정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수현(2003). 사회적지지와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옥란(2008). 초등학생의 부모애착이 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행식(2005).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혜영(1995). 완벽주의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aron, R.M & Kenny, D.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of behavior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Ginzberg, E. , Ginsburg, S. W., Axelrad, S.,& Herma,J. L.(1951).
Occupational choic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Hackett, G.& Betz, N. E.(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Troits, P.A.(1982).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studying social support as a buffer against life stress. *Journal of and
Social Behavior, 23(2), 145-159.*

Super, D. E.(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 185-190.*

<Abstract>

**The effect of the social support and the self-efficacy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on career maturity**

Kim, Do-Yeon

Counse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ung-Bong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on career maturity, and whether self-efficacy mediates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maturity.

Study problem 1: Is there a correlation among social supports (parents, teachers, and friends),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Study problem 2: Does social support (parent, teachers, and friends) influence career maturity?

Study problem 3: Does self-efficacy influence career maturity?

Study problem 4: Does social support (parent, teachers, and friends) influence self-efficacy?

Study problem 5: Does self-efficacy mediate between social support (parents, teachers, and friends) and career maturity?

* This thesis submitted to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11.

To solve the above problems, the test for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were conducted, targeting 762 male and female students in grade 1 and 2 of 10 high schools, located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700 copies were used for an analysis.

With respect to the study measurement tool, the social support perception scale of Lee, Mira(2000) in which “Students Social Support Scale” using the translated “Nolten(1994)’s ‘the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was used, and for the test of self-efficacy, ‘the general self-efficacy scale’ in which Cha, Hungeon(1997)’s self-efficacy scale was revised by Kim, Ayoung(1997), was used. To test career maturity, ‘the career maturity scale’, developed by Lee, Kihak(1997), was used, and for the analysis of the data, a correlation analysis, a simple regression analysis, and a multi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by SPSS for Windows 12.0.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as (+) relations among social support (parents, teachers, and friends),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The higher the social support (parents, teachers, and friends), the higher the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were, and the higher the self-efficacy, the higher the career maturity was.

Second, social support (parents, teachers, and friends) had positive effects on entire career maturity and the sub-factors: determinacy, certainty and readiness, and the higher social support (parents, teachers, and friends), the more the career maturity was improved.

Third, self-efficacy had effects on entire career maturity and the sub-factors: the variables of determinacy, finality, readiness, and independency, and the higher the level of self-efficacy, the more the career maturity of high school students was improved.

Fourth, social support (parents, teachers, and friends) had positive effects on self-efficacy, and the higher the level of social support (parents, teachers, and friends), the more the self-efficacy was improved.

Fifth, self-efficacy had the mediated effect in social support (parents, teachers,

and friends), and social support (parents, teachers, and friends) had direct effect on self-efficacy, and this, consequently, had indirect effect on the career maturity of high school students.

Based on the findings as above, social support (parents, teachers, and friends),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we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and self-efficacy had the mediated effect between social support (parents, teachers, and friends) and career maturity. Thus, it was known that, to establish the career maturity of high school students, the necessity of the social supports from parents, teachers, and friends, should be emphasized and the social support, 'the external resources received from significant others' had the positive effect on the self-efficacy, 'the personal innate resources, indicating the personal belief to their own capability'; based on this, playing a pivotal role in establishing the career maturity of high school students.

부 록

1. 사회적 지지 설문지

번호	내용	전 혀 아 니 다	거 의 아 니 다	보 통 이 다	조 금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신다.	1	2	3	4	5
2	나의 부모님은 내가 결정을 못 내리고 망설일 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용기를 주신다.	1	2	3	4	5
3	나의 부모님은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신다.	1	2	3	4	5
4	나의 부모님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	1	2	3	4	5
5	나의 부모님은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신다.	1	2	3	4	5
6	나의 부모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돈이나 물건을 최선을 다해 마련해 주신다.	1	2	3	4	5
7	나의 부모님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1	2	3	4	5
8	나의 부모님은 내가 부모님에게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 주신다.	1	2	3	4	5
9	나의 부모님은 내가 잘한 일에 대해 칭찬을 해 주신다.	1	2	3	4	5
10	나의 선생님은 내가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다.	1	2	3	4	5
11	나의 선생님은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신다.	1	2	3	4	5
12	나의 선생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신다.	1	2	3	4	5
13	나의 선생님은 어떤 일에 대해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신다.	1	2	3	4	5
14	나의 선생님은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신다.	1	2	3	4	5
15	나의 선생님은 나의 일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신다.	1	2	3	4	5
16	나의 선생님은 나의 목표와 관심 분야에 대해 함께 얘기하는 시간을 마련하신다.	1	2	3	4	5
17	나의 선생님은 내가 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칭찬해 주신다.	1	2	3	4	5
18	나의 선생님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거나 잘했을 때 나를 칭찬해 주신다.	1	2	3	4	5
19	나의 친구들은 내가 기분이 나쁠 때 나의 기분을 이해해주고 기분을 전환 시켜주려고 한다.	1	2	3	4	5
20	나의 친구들은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준다.	1	2	3	4	5
21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 때도 나의 친구들은 나의 곁에 있어준다.	1	2	3	4	5
22	나의 친구들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해준다.	1	2	3	4	5
23	나의 친구들은 내가 혼란스러워 하는 것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준다.	1	2	3	4	5
24	나의 친구들은 내가 아플 때 나의 일을 대신 해 준다.	1	2	3	4	5
25	나의 친구들은 자신의 것을 나와 함께 사용한다.	1	2	3	4	5
26	나의 친구들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준다.	1	2	3	4	5
27	나의 친구들은 내가 어떤 일을 잘 했을 때 기분 좋은 말을 해 준다.	1	2	3	4	5

2. 자기효능감 질문지

번호	내용	전 혀 아 니 다	거 의 아 니 다	보 통 이 다	조 금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위험한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하다.	1	2	3	4	5
2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	2	3	4	5
3	나는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다.	1	2	3	4	5
4	나는 어렵거나 도전적인 일에 매달리는 것을 재미있어 한다.	1	2	3	4	5
5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한다.	1	2	3	4	5
6	나는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를 잘 분석해 낼 수 있다.	1	2	3	4	5
7	나는 일을 조직적으로 처리하는 편이다.	1	2	3	4	5
8	나는 일은 쉬운 것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9	나는 큰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져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1	2	3	4	5
10	나는 항상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비추어서 일의 진행 상태를 확인한다.	1	2	3	4	5
11	나는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1	2	3	4	5
12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할 수 있다.	1	2	3	4	5
13	나는 주변사람들이 나보다 모든 일에서 뛰어난 것 같이 생각된다.	1	2	3	4	5
14	나는 위협적인 상황에서는 스트레스를 필요이상으로 받는다.	1	2	3	4	5
15	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는 우울함을 느낀다.	1	2	3	4	5
16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1	2	3	4	5
17	나는 실수를 좀 하더라도 어려운 일을 좋아한다.	1	2	3	4	5
18	나는 어떤 일이 처음에 잘 안되더라도 뭘 때까지 해 본다	1	2	3	4	5
19	나는 어떤 문제에 대한 내 판단은 대체로 정확하다.	1	2	3	4	5
20	나는 만일 일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것을 선택할 것이다.	1	2	3	4	5
21	나는 일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빨리 바로 잡는다.	1	2	3	4	5
22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1	2	3	4	5
23	나는 아주 쉬운 일보다는 차라리 어려운 일을 좋아한다.	1	2	3	4	5
24	나는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한다.	1	2	3	4	5

3. 진로성숙도 설문지

번호	내용	전혀 아니 다	거 의 아 니 다	보 통 이 다	조 금 그 럴 다	매 우 그 럴 다
1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져 있다.	1	2	3	4	5
2	나는 하고 싶은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3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를 선택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1	2	3	4	5
4	앞으로 되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 자주 생각해 보기는 하지만 실제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은 없다.	1	2	3	4	5
5	주위사람마다 서로 생각이 달라서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1	2	3	4	5
6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	1	2	3	4	5
7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실히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이다.	1	2	3	4	5
8	나중에 바뀔지 모르지만 일단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해 놓았다.	1	2	3	4	5
9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	1	2	3	4	5
10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 힘들다.	1	2	3	4	5
11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면을 먼저 생각한다.	1	2	3	4	5
12	비록 내 적성하고는 안 맞더라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원한다.	1	2	3	4	5
13	나는 근무시간이 짧고 작업환경도 좋은 직업을 원한다.	1	2	3	4	5
14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그 직업에서 출세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한다.	1	2	3	4	5
15	나는 일의 종류에 상관없이 봉급을 많이 주는 직업을 원한다.	1	2	3	4	5
16	나는 내 적성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일류직장에 취업할 것이다.	1	2	3	4	5
17	직업을 선택할 때 일의 성격보다는 승진기회 등을 먼저 고려한다.	1	2	3	4	5
18	직업을 통해 보람을 얻기 보다는 편하게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	1	2	3	4	5
19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하다.	1	2	3	4	5
20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1	2	3	4	5
21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큼 잘 할 자신이 있다.	1	2	3	4	5
22	나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꼭 성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1	2	3	4	5
23	나는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잘 할 자신이 있다.	1	2	3	4	5

24	내가 선택한 직업이 내가 되고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 줄지 걱정이 다.	1	2	3	4	5
25	나는 노력만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1	2	3	4	5
26	나는 내 자신과 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	1	2	3	4	5
27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직장의 상사로부터 인정받을 자신이 있다.	1	2	3	4	5
28	아무리 노력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1	2	3	4	5
29	나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현재에도 앞으로의 직장생활에 대해 상상해 본 다	1	2	3	4	5
30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갖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1	2	3	4	5
31	나는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한지를 알아보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	1	2	3	4	5
32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	1	2	3	4	5
33	나는 신문을 읽을 때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관 심 있게 읽는다.	1	2	3	4	5
34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한 다.	1	2	3	4	5
35	졸업한 선배들이 진학 및 진로에 대해 설명회를 해주길 원한다.	1	2	3	4	5
36	자신이 직업세계에서 성공한 사람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 사 람처럼 행동하곤 한다.	1	2	3	4	5
37	특별히 결정된 사항이 없더라도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1	2	3	4	5
38	자신의 흥미나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을 받기 원한다.	1	2	3	4	5
39	내가 원하는 직업에 대해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직업을 결정하기가 어려 울 것이다.	1	2	3	4	5
40	나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진로를 선택할 것이다.	1	2	3	4	5
41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1	2	3	4	5
42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결국은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1	2	3	4	5
43	다른 사람의 지지가 있어야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1	2	3	4	5
44	나는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을 결정할 것이다.	1	2	3	4	5
45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신대로 직업을 선택해야한다.	1	2	3	4	5
46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야한다.	1	2	3	4	5
47	내 경우,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 쓰고 진로를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이다.	1	2	3	4	5